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오는 2023년 1월 29일까지 열리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 국보 '인왕제색도'를 직접 보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1676-1759)은 진경산수화의 대가다. 산수화의 특징을 살린 독특한 화풍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대표적인 작품이자 국보인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당시 75세였던 정선이 한차례 비가 쏟아진 뒤의 그린 인왕산은 서정적, 서경적 정취가 넘친다. 활달한 붓끝과 대담한 묘사는 그의 심상에 드리워진 산의 이미지까지 가능하게 한다.

국보 '인왕제색도'를 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일환으로 개최되며 전시 명은 '어느 수집가의 초대'.

오는 2023년 1월 29일까지 개최하는 광주박물관 특별전은 이건희(1942-2020) 회장 1주기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소개했던 우리 문화재들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지역 순회 전시로, 가장 먼저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특별전에는 '인왕제색도' 외에 국보인 '백자 청화 대나무무늬 각병'을 비롯해 보물 '분청사기 조화 새 나무무늬 편병', '청자 삼각 모란무늬 발우와 접시' 등 국보와 보물 등 16건 31건의 지정문화재와 함께 총 170건 271점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광주박물관 특별전에서는 39건의 62점의 새로운 전시품도 공개하고 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걸쳐 수집가의 높은 안목과 취향으로 모은 문화재들이 다수 출품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에 대한 안목은 선친 고 이병철(1910-1987) 회장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알려졌다. 서책과 회화를 비롯해 토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불교미술품 등 수준 높은 문화재는 어느 수집가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수집가의 '취향'과 '안목'으로 구성됐다. 이 주제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애호했던 정

광주박물관 특별전,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어느 수집가의 초대' 김홍도 '국화도', 신윤복 '혜원화첩', 삼국시대 작품 '보살' 등



'인왕제색도'

자와 이건희 회장이 즐겼다는 백자, 분청사기 등 다양한 도자들을 만나다. 아울러 예향인 호남에서 열리는 전시인 만큼 조선 전기부터 근대를 대표하는 서화가들의 전시품을 볼 수 있다.

탁월한 감각, 빼어난 기량의 화가 김홍도의 작품 '국화도'와 '혜원상매도'를 감상하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또한 나무 아래서 오수를 즐기는 '수하오수도'에 담긴 글귀는 정취와 낭만이 넘친다. 버드나무와 꽃이 핀 복숭아나무 아래 낮잠을 자는 이의 모습이 정겹다. 그림과 함께 글귀에 대한 해석을 읽는 맛도 새롭다. '복숭아꽃 붉은 것은 간밤의 비를 머금었기 때문이요/ 버드나무 푸른 것은 아침 안개를 들렀기 때문이라네'

또한 신윤복의 '혜원화첩', '취도월유', 이상좌

의 '이상좌불화첩'(보물)을 비롯해 최복의 '한강조어도', 홍세섭의 10폭 '화조도' 등의 작품도 전시돼 있다. 기증품 중 22건 34점 회화 작품들은 수준 높은 서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다른 주제 '안목'에서는 국보 5건 8점을 비롯해 보물 11건 23점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소개돼 있다. 가장 많은 발길이 머무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김홍도의 마지막 기념작 '추성부도'(보물)는 이 달 말까지만 광주에서 만날 수 있다.

6세기 작품인 '일광삼존상'(국보)과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 초로 추정되는 시기의 '보살'(보물), 조선시대 불경 연해서인 '월인석보권11'(보물) 등도 볼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전철기의 재해석

26일까지 문철호 초대전  
최진석 운영 합평 호접몽가  
28~30일 순천 연경갤러리



'우주의 기원'



최진석 교수가 고향 합평에 지은 '호접몽가'

철학자 최진석(새마을모임 이사장)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고향 합평에 '호접몽가(胡蝶夢家)'를 지었다. 장자의 사상을 건축으로 구현한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다. 그는 "철학은 개념으로 지은 집이고, 건축은 벽들로 쌓은 철학"이라고 말한다.

윤경식((주)한국건축 KACI 회장) 건축가가 설계한 '호접몽가'는 세계건축협회가 수여하는 제 35회 세계건축상(World Architecture Award 2020)을 수상하기도 했다. '호접몽가'는 최 교수가 진행하는 '새마을모임 기본학교'가 열리는 공간이며 가끔 문화강좌가 열리기도 한다.

건물 자체가 예술인 호접몽가와 고로쇠 나무, 가시오가피 등 수많은 꽃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을 살펴보고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철호 작가 '나전철기 재해석' 초대전이 오는 26일까지 합평 호접몽가(대동면 향교리 997-6)에서 열린다. 전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순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연경갤러리(중앙 1길 11-19)에서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사)새마을모임의 정신과 활동에 동의하는 의미로 문 작가가 손수 나전철기 한점을 들고 호접몽가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평면 작품, 도자, 합, 다반 등 다양한 나전철기 작품을 전시한다.

문 작가는 전통적인 나전철기 작업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질료와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나전철기라는 장르의 폭을 확장해 왔다.

나전철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에 깊고 화려한 컬러를 입히는 옷질 기법을 고안

해 나전과 컬러 그림으로 자연을 섬세하게 묘사했으며 전시작들은 나무, 옷질, 자개, 삼베, 토분, 순금박 등 모두 천연재료로만 제작됐다.

또 자개를 가늘고 길게 실처럼 썰어 문양에 따라 굵으면서 조직적인 기하학 무늬를 연속적으로 구성하거나 그림의 선을 따라 회화적인 효과로 수를 놓듯, 섬세하고 정교하게 붙여나가는 '끓음질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전시작들은 화려함이 돋보인다. 자개로 표현해 낸 풍경화 '새벽동행', '해, 달그림자', '새로운 몸짓들' 등은 마치 회화작품 처럼 보이며 도자기에 작업한 '우주의 기원'도 눈길을 끈다. 또 국립박물관 소장작품인 '나전철연화빙루무늬관복합'을 재현한 작품과 '호접빙루무늬 당초문합', '나전육각보석합', 접시, 다반 등이 전시된다.

1976년 나전에 입문한 박 작가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현재 '나전철기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박 작가는 "변방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호접몽가라는 공간에서 전통 나전철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시선으로 예술성을 높이고자 한 작품을 보여주려한다"고 말했다.

"예술품으로부터 얻는 감동의 높이로 내가 상승한다는 기분을 갖는 건 너무 행복한 경험"이라고 말하는 최 교수는 초대의 글에서 "예술이 없었다면 인간이 인간일 수 있었을까? 석양빛을 받았을 때 여러가지 빛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나전철기의 속살과 그 오랜 인고를 알아냈다. 10월은 나전철기라는 다리를 건너 예술의 고향에 가 보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적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지역 청년작가들의 부드러운 개입

다양한 기획형 등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성장을 견인해온 예술공간 집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넛지 프로젝트'다. 경제용어이자 베스트셀러 제목인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는 뜻으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넛지 프로젝트는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부드럽게 개입함으로써 이들의 작품세계가 더욱 성장하고 또 지역미술의 활발한 움직임을 조금씩 유도해 보자는 의도로 기획됐으며 여행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공간 집은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년 이상 활동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강미미(회화), 김은택(회화), 백상욱(조각), 서영기(회화), 진 허(회화), 한동훈(회화) 총 6명을 선정했다.

'삶의 균형과 조화'를 주제로 작업하는 강미미 작가는 대인예술시장레지던시 등을 거치며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과 공간, 이미지 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재현하며 '빛'을 작품 소재로 삼는 김은택 작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을 회화의 눈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그리기의 방식을 차용, 빛의 무수한 현상과 감정 등을 기록해가고 있다.

백상욱 작가는 각자의 기억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수단이자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 그릇인 고무신으로 독자적 작품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서영기 작가는 폐허가 된 건물의 공간, 노을 풍경, 사탕, 담배, 썩은 강물 등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되는 모습을 독자적 회화로 보여준다.

나무의 나이테에 여성의 삶을 상징적으로 대입해 그려나가는 진 허 작가는 어머니의 삶에 녹아든 주름처럼 한 해, 한 해 시간을 쌓은 나이테를

예술공간 집 '넛지프로젝트' 작가들 참여 19·21일 워크숍 강미미, 김은택, 백상욱, 서영기, 진허, 한동훈 참여

여성의 이미지와 결합해 여성의 삶과 존재 가치를 보여주며 한동훈 작가는 미키마우스나 피노키오 등의 소재들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정체성과 복잡한 감정을 보여준다.

작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19일에는 한동훈·강미미·서영기 작가가 신청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며 20일에는 진허·김은택 작가가 21일에는 백상욱 작가가 참여한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상욱 작 '休-Friend'



한동훈 작 '이상한 풍경'